



유성 해고자 대법원 승소! 10일 복직 확정!

7년만에 드디어 현장으로!

유성지회 해고자 11명(영동 4명, 아산 7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2011년 1차 해고, 2013년 2차 해고로 두 번의 아픔을 겪었던 해고자 동지들이 드디어 현장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은 10월 4일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해고는 위법하다고 최종 확정했다. 11명의 해고자 동지들은 10월 10일(수) 현장으로 복직한다.

유성기업 노조파괴는 가장 엄히 처벌해야!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주간연속2교대 도입을 위한 교섭 중 사측이 불법적으로 직장폐쇄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노조파괴가 시작됐다. 당시 노동청, 검찰, 경찰 등은 노골적으로 사측 편향적인 모습을 보였고,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직접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비난하는 등 국정원, 청와대까지 개입하기도 했다. 정권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주고, 자본은 그 위에

서 부당노동행위 칼날을 휘두르며 노조를 파괴해갔다. 유성지회 노동자들도 그 칼날에 수없이 고통받았고, 11명의 해고자는 7년째 공장 밖으로 쫓겨나 있었다.

이제 노조파괴-부당노동행위는 엄격히 처벌하고 뿌리를 뽑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노조파괴 범죄를 가장 극심하게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유성기업이다. 문재인 정권이 노동존중 사회를 말하려면 최소한 유성기업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끝장을 보자!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7년은 노동자들에게 긴 고통의 시간이었다. 해고자 복직으로 끝나기엔 산적한 문제가 많다. 해고자 복직을 시작으로 노조파괴에서 발생한 현안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이전의 정상적인 노사관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성 노동자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방법은 노조파괴를 한시라도 빨리 끝장내는 것 뿐이다.

재벌을 바꾸자! 재벌개혁 순회투쟁

금속노조가 재벌개혁을 위한 순회투쟁에 나선다. 1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재벌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투쟁을 벌인다. 10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경총, LG, 삼성, 현대기아차, 한진, 금호아시아나, 롯데, SK를 순회하며 재벌의 문제점을 여론화할 계획이다.

재벌사들의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노조파괴 공작, 불법파견, 경영세습, 불공정거래,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사고 등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 직접 개입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하청기업에까지 재벌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부는 11일(목) 15시 현대기아차 앞에서 벌어지는 순회투쟁 일정에 함께할 예정이다.

* 주요 일정 *

- ☐ 중앙교섭 찬반투표
10/10(수)~12(금)
- ☐ 재벌개혁 순회투쟁
10/11(목) 15시 현대차본사
18시 서울노동청
- ☐ 창구단일화 폐기 투쟁
10/12(금) 10시 경사노위앞
- ☐ 민주노총 충북 확산수련회
10/12(금)~13(토) 청주 청소년수련원